

“아르메니아 문제”와 아르메니아 “균형외교”의 한계*

金淵奎

- | | |
|-----------------------------|----------------------------|
| I. 서론 | IV. 러시아, 미국, 이란의 “아르메니아문제” |
| II. “아르메니아 문제”의 역사적 기원 | 개입 |
| III. 유라시아 시대 “아르메니아 문제”의 전개 | A. 러시아 |
| A.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관계: | B. 미국 |
|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 C. 이란 |
| B. 아르메니아-터키 관계 | V. 결론 |

한글초록

본 논문은 이제까지 분석적으로 당연시 되어온 아르메니아 대외관계의 러시아의 존이라는 관념을 문제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르메니아 대외정책이 왜 처음부터 러시아 의존적이 되었는지를 역사적 기원으로 부터 밝히는 것이다. 결국 아르메니아의 민족정체성과 민족국가건설의 문제인 “아르메니아문제”가 러시아 의존적이 된 근본원인이었음을 밝힌다. 둘째, 소련 몰락 후 새로운 유라시아 환경에서 러시아, 터키, 이란,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르메니아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아르메니아의 러시아의존의 성격을 밝히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서구,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해 소위 흔히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쓰는 말로는 “보완적”(complementary)인 외교를 펼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실제 아르메니아는 군사적인 것 이외의 측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려 노력하였다. “균형”(complementarity)의 의미는 아르메니아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강대국과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달리 아르메니아외교정책은 실제로 러시아에 경도된 관계를 유지하였다.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23-B00036).

그 원인은 아르메니아의 국익 규정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 의해 좌우되고 아르메니아 안보관의 중심에는 아르메니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해 온 터키의 안보적 위협과 아르메니아의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한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관계에 의존해 대외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는 인접한 터키, 아제르바이잔과 오래된 인종, 영토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적 보호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아르메니아는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변화를 시도하긴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되는 추세이며 최근에 러시아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

주제어 : 아르메니아외교, 나고르노-카라바흐, 남코카서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관계, 아르메니아-터키 관계

I. 서론

아르메니아는 지리적으로 흑해(the Black Sea)와 카스피해(the Caspian Sea)의 중간에 위치한 남코카서스 3국 가운데 하나로서 남코카서스 지역적으로는 서쪽으로 터키, 북쪽으로 그루지야, 동쪽으로 아제르바이잔, 남쪽으로 이란 등 사방이 내륙에 접해(landlocked) 있다. 터키,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이란 등의 지역 국가들 이외에 아르메니아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로는 EU, 미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의 강대국들이다. 아르메니아는 미국의 메릴랜드 주 크기의 인구 3백만의 약소국이다. 아르메니아는 역사적으로 코카서스지역에서 “아르메니아문제”(the Armenian Question)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의 근원지가 되어왔으며 강대국이 개입되면서 “아르메니아문제”는 유럽의 국제문제화 되어왔다. “아르메니아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의 문제이다. 아르메니아인들은 현재의 강대국에 의해 잘못 확정된 영토를 정당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아르메니아문제”는 또한 인종적 문제이기도 하고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르메니아문제”는 아르메니아가 처한 지리적 환경(geography)에 기인한다. 아르메니아는 주요 문화와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 남코카서스 지역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와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는 지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제국, 그리고 20세기 소련 등 초국가적 단위의 여러 제

국의 지배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는 이란의 이슬람, 터키의 이슬람, 유럽, 러시아 등 지배제국의 중앙문명이 단일 국가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억눌러왔다. 이란, 터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놓고 정치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위해서 뿐 아니라 문명적, 문화적 영향력을 위해 경쟁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르메니아의 정체성과 민족 국가건설은 반복적인 실패를 겪었다. 제국의 흥망은 주기적인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되었다. 소련의 몰락(러시아의 약화)과 아르메니아의 독립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체성과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은 또다시 표출되었다.

유라시아 국제관계 연구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유라시아의 신흥독립국들이 기존의 러시아와의 종속적인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 등으로의 새로운 관계수립을 함으로써 해당국가에서 러시아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미국,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이르는 11개의 신흥 독립국들은 이런 측면에서 모두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원인도 다양하다. 아르메니아는 다른 유라시아 국가들의 이와 같이 “동과 서”(between East and West) 사이의 갈등하는 외교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친러시아적인 외교정책을 보인다고 흔히 평가되어져 왔다. 아르메니아에서의 러시아의 지속적인 헤게모니의 근거로 제시 되는 것은 흔히 러시아와 아르메니아간의 군사협력이다. 아르메니아는 CIS 군사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CIS 관세동맹이나 러시아-벨라루스연합 등의 참여에는 반대하였으나 러시아 중심의 군사협력에는 적극적이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이제까지 분석적으로 당연시 되어온 아르메니아 대외관계의 러시아의존이라는 관념을 문제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르메니아 대외정책이 왜 처음부터 러시아 의존적이 되었는지를 역사적 기원으로부터 밝히는 것이다. 결국 아르메니아의 민족정체성과 민족국가건설의 문제인 “아르메니아문제”가 러시아 의존적이 된 근본원인이었음을 밝힌다. 둘째, 소련 몰락 후 새로운 유라시아 환경에서 러시아, 터키, 이란,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르메니아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아르메니아의 러시아의존의 성격

을 밝히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서구,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해 소위 흔히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쓰는 말로는 “보완적”(complementary)인 외교를 펼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실제 아르메니아는 군사적인 것 이외의 측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려 노력하였다. “균형”(complementarity)의 의미는 아르메니아에 이해 관계를 가진 모든 강대국과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달리 아르메니아외교정책은 실제로 러시아에 경도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원인은 아르메니아의 국익 규정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 의해 좌우되고 아르메니아 안보관의 중심에는 아르메니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해 온 터키의 안보적 위협과 아르메니아의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한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관계에 의존해 대외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는 인접한 터키, 아제르바이잔과 오래된 인종, 영토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적 보호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아르메니아는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변화를 시도하긴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되는 추세이며 최근에 러시아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

먼저 “아르메니아문제”를 정의하고 “아르메니아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19세기 터키제국의 쇠락을 계기로 유럽국가들과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을 본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아르메니아문제”가 다시 일어난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러시아, 미국, 이란의 “아르메니아문제”에 대한 개입과 아르메니아의 입장을 분석한다.

II. “아르메니아 문제”의 역사적 기원

본 장에서는 “아르메니아 문제”란 무엇이며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의 정체성과 민족 국가건설의 실패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19세기에 유럽의 세력균형 속에서 “아르메니아문제”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개입하게 되는 과정을 본다. 19세기 중반이후 “아르메니아문제” 의식의 고취로 아르메니아 민족국가건설에 대한 열

망이 아르메니아인들 사이에 번질 수 있었던 것은 터키제국의 약화라는 유럽의 세력균형의 균열 때문이었다. “아르메니아 문제”란 다음의 몇 가지 현상을 복합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 “아르메니아문제”는 현재의 구소련이래의 아르메니아영토는 원래의 대아르메니아 영토에서 상당히 축소된 것이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아르메니아 영토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 원래의 아르메니아 영토는 대부분 현재의 터키 영토 내에 존재하며 일부는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존재한다.
- “아르메니아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영토문제이지만 국가를 잃은 아르메니아인들의 박해와 강제이주의 문제이기도 하며 터키인으로부터 아르메니아인들은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며 상징적으로 1915년에 있었던 터키에 의한 1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의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 중요하다.
- “아르메니아문제”는 터키의 제국주의적 확산의 결과 생긴 것이며,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 아르메니아의 주권과 국가건설을 이룩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인의 등장은 기원전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인종적으로 인도-유럽족에 속하고 301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¹⁾ 기원 후 220년에서 5세기까지는 사사니아왕조(Sasanian Empire)의 지배를 받았으며, 5세기부터 7세기까지는 비잔틴제국, 그리고 7세기부터 10세기까지는 아랍민족의 지배를 받았다. 아르메니아는 11세기부터 터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기간 동안 아르메니아는 다양한 제국의 지배아래서 한 번도 독립 국가를 건설해 본 적이 없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통일된 국가아래 민족의식을 갖지 못했으며 아르메니아의 귀족들은 몇 개의 봉건공국을 건설하여 주변의 제국의 보호를 받았다.²⁾ 주요 제국이 새롭게 들어설 때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박해와 강

1) Razmik Panossian, “The Past as Nation: Three Dimensions of Armenian Identity.” *Geopolitics*, Vol. 7, No. 2 (2002), pp. 121-146.

2) “Armenian Issue in Nine Questions and Answers,” Turkish Foreign Policy Institute,

제이주를 당하곤 하였다. 박해와 강제이주의 첫 번째 주요경험은 비잔틴 제국 아래에서였다.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받아 들인지 150년만인 451년 비잔틴제국과 종교적으로 갈라서게 됨으로써 오랫동안의 박해를 받게 된다. 비잔틴으로부터의 박해로부터 구원을 해준 것이 11세기부터 현재의 터키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터키인들이었다. 터키제국은 제국내의 비이슬람 민족들에게 비교적 자유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아르메니아인들은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았으며 인종적으로 터키인과 아르메니아인들도 평화롭게 공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지배 하에서 아르메니아는 비교적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터키의 지배를 받아 들였으나 기독교 국가로서 이슬람 국가의 지배하에 있다는 자체는 많은 차별을 감수하도록 만들었다.³⁾

15세기가 되어 아르메니아는 오토만제국(터키)과 페르시아제국(이란)에 의해 양분되어 각각 절반씩 지배를 받는다. 터키 지배 아르메니아를 서아르메니아(Western Armenia), 이란 지배 아르메니아를 동아르메니아(Eastern Armenia)라고 불렀다. 이 시기에 특히 오늘날의 카라바흐 지역은 대부분의 아르메니아인들에 의해 공국의 형태로 지배되고 있었다. 16-17세기에도 아르메니아인들은 페르시아와 터키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같은 기독교 국가인 유럽과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18세기말과 19세기 초가 되면 러시아제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1804-1813년 동안의 러시아-페르시아전쟁으로 이어졌고 1813년 굴리스탄조약으로 러시아는 카라바흐지역을 포함한 많은 동아르메니아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1827-1828년의 제2차 러시아-페르시아전쟁은 예레반과 나키체반을 포함한 동아르메니아의 완전한 지배를 러시아에게 가져다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1828년의 투르크멘차이 조약에 명시되었다.⁴⁾

이 시기에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터키의 영향력 감소로 아르메니아의 민족주의와 국가건설 문제가 본격적으로 유럽의 국제문제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러시아가 제국의 확대를 위해 동구에서부터 지중해, 흑해, 카스피해 지역에

December 2008.

3) http://nkrusa.org/nk_conflict/facts_evidence.shtml (검색일 2009년 1월 5일).

4) Ibid.

이르기까지 터키의 지배력을 잠식하기 위해 노력하던 때로 러시아는 터키지배 아래 있던 그리스, 발칸지역의 슬라브민족들, 그리고 아르메니아인들과 같이 정교나 기독교 민족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오토만제국내의 기독교민족들과 연대를 취하려고 했던 것은 단지 러시아 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강대국들 특히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범아르메니아” 건설에 대한 약속을 암시적으로 하면서 터키의 영향력감소를 위한 아르메니아인들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였다.

1877-1878년의 러시아-터키 전쟁과 이를 마무리하는 1878년의 베를린회의(Congress of Berlin)는 “아르메니아문제”가 유럽의 국제문제로 가장 첨예하게 등장한 계기가 되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전쟁의 결과 러시아가 점령하게 된 터키령 서아르메니아 지역으로부터 철수하지 않도록 러시아에게 요구하였으며 러시아의 터키점령은 아르메니아의 국가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범아르메니아” 조항은 전쟁을 종결하는 협약에 한 조항으로 명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범아르메니아” 조항과 러시아의 터키점령을 반대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러시아의 터키점령이 러시아의 지나친 영향력확대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여 아르메니아의 국가건설을 결과적으로 반대하고 따라서 러시아는 터키로부터 철수하게 되었다.⁵⁾ 터키 지배에 대한 아르메니아인들의 독립운동과 저항은 이후 더욱 거세게 되었는데 1894-1896년의 터키정부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등의 사례가 빈번해 지게 되었다.⁶⁾

1차 대전과 함께 오토만제국이 붕괴되면서 러시아제국이 터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과정에 아르메니아 용병이 러시아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915년 터키정부는 이를 이유로 65만-150만 사이의 오토만 제국령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체포하여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에서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소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아예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은 이를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Genocide)이라 부르면서 교회와 주민 모두 기념한다.

5) Ibid.

6) Anna Matveeva, “The South Caucasus: Nationalism, Conflict, and Minorities,”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2002, p. 6.

러시아군은 1차 대전 동안 대부분의 터키 지배하의 아르메니아를 장악했으나 1917년의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 지배 동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이 코카서스공화국으로 병합되었다. 그러나, 병합된 공화국은 1918년 2-4월 3개월만 유지된 후 다시 분열되어 동아르메니아가 1918년 5월 28일 아르메니아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Armenia: DRA)으로 독립하였다. DRA는 터키 지배 아르메니아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난민으로 혼란이 계속되었다. 전쟁이 종식된 후 터키 아르메니아를 분할하여 DRA에 병합하는 과정은 더욱 더 큰 혼란을 가져왔다. 신생 아르메니아의 국경은 터키아르메니아를 어떻게 병합하느냐에 달려있었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윌슨아르메니아”라고 불리기도 하였다.⁷⁾ 터키아르메니아는 미국령으로 남기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가 다시 문제로 떠오른 것도 이 시기였다. 러시아혁명으로 터키-독일 연합군은 코카서스로 진격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약 20,000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사망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 공화국(Azerbaijan Democratic Republic)이 새롭게 세워졌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바로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 영토로 간주되고 대부분 아르메니아 인종이 거주하고 있던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편입시킨다고 발표하였다. 나고르노-카라바흐 거주 아르메니아인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영토로 선포하고 아제르바이잔의 지배를 거부하자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점령군의 도움을 얻어 지배를 강요하려 하였다. 이런 와중에 1918년 10월 터키가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코카서스에 영국군이 점령을 하자 아제르바이잔은 영국의 도움을 얻어 나고르노-카라바흐 민족위원회의 반발을 무마하려 하였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민족위원회의 주장은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르메니아와 분리될 수 없는 영토라는 것이었다. 이후 1920년까지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과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다.

소련이 1920년 아르메니아를 침공하여 12월 소련에 공식 편입됨에 따라 스탈린의 중재로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갈등이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소련이 처음

7) Ibid., p. 7.

점령했을 때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소련이 잠정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으며, 1921년 소련공산당 코카서스지부의 결정으로 이전의 입장을 뒤집고 다시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당시 이러한 갑작스런 결정은 스탈린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터키와의 관계 개선을 외교 정책의 목적으로 갖고 있던 스탈린은 터키와 형제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다. 그 결과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자치주(Nagorno-Karabakh Autonomous Region: NKAO)로 남게 되었다.⁸⁾

카라바흐 문제는 소련제국 안에서 해결되었다기 보다는 70년 동안 연기되었던 것이다. 소련정부하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NKAO)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빼앗긴 아르메니아 영토에 저항하였다. NAKO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모스크바 중앙정부에 1921년의 NKAO의 아제르바이잔영토로의 편입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무효임을 주장하는 서신과 탄원을 보냈다. NKAO는 궁극적으로 아르메니아와의 재통합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인종간 충돌을 조장하여 많은 NKAO 인사들을 체포, 탄압하였으며 1967-68년에는 NKAO에서 심각한 정부와 NKAO 아르메니아인들간의 충돌이 있었다. 1960년대에 대학가와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터키에 빼앗긴 아르메니아 영토를 회복하고, 터키의 박해로 사망한 아르메니아 독립운동가를 기리며 더 나아가 아르메니아, 나키체반, 나고르노-카라바흐 등을 모두 통합하여 범아르메니아를 건설하는 운동을 벌이며 소련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었다.⁹⁾ 아제르바이잔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르메니아는 비교적 소련제국에 잘 융합되었다. 다른 소련 공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련정부는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와 아르메니아의 행정적 독립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문화적 언어적으로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 예컨대, 소련정부는 행정과 교육에 있어서 아르메니아어의 사용

8) Ibid., p. 7.

9) Nora Dudwick, "Armenia: Paradise regained or lost?" in Ian Bremmer & Ray Taras, *New States, New Politics: Building the Post-Soviet N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471-504.

을 권장하였다. 카라바흐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아르메니아인들을 아르메니아 본국정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카라바흐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도 낙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다.¹⁰⁾ 실제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NKAO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 그 지역은 낙후된 농업 지역으로 남게되었고 일자리 부족과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차별로 아르메니아인들은 점점 카라바흐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의도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카라바흐 지역으로의 이주를 도모하였다. 예를 들어 1926년에서 1979년 사이에 NKAO 인구 가운데 아르메니아인의 비중은 95%에서 76%로 줄었고 아제르바이잔인은 10%에서 23%로 증가하였다.¹¹⁾

아르메니아인들은 NKAO와 아르메니아의 통합을 갈망하고 있었지만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시대에는 공개적으로 요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한지 2년만인 1987년에 전반적인 정치자유화의 분위기와 함께 NKAO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카라바흐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자결 운동은 1987년 하반기에 본격화되어 수만 명의 집회와 시위가 있었고 아르메니아와의 통일을 요구하는 80,000명 명의의 탄원서를 소련공산당에 전달했다. 소련공산당과 아제르바이잔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고 탄압으로 일관하였으며 마침내 1988년 2월20일 NKAO의 수도 스테파나커트(Stepanakert)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으며 1988년 2월 27-29일 NKAO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제르바이잔의 숨가이트(Sumgait)에서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의 학살과 민간인 충돌이 있게 된다. 이 사건으로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숨지거나 부상당했으며 18,000명의 아르메니아인이 거주지를 잃고 난민이 되었다.¹²⁾ 소련정부는 1989년 1월 NKAO의 독립과 아르메니아와의 통합요구를 공식적으로 묵살하고 대신 NKAO를 소련의 지배하에 일시적으로 편입시키고 NKAO와 아르메니아 일부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NKAO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외부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당시 NKAO에는 많은 인사들이 투옥되기도 하였는데 후에 아르메니아의 대통령이 된 코차리안은 6개월간 투옥되었다. 당시 아

10) Ibid., p. 483.

11) Ibid.

12) http://nkrusa.org/nk_conflict/facts_evidence.shtml (검색일 2009년 1월 5일).

르메니아 민족운동의 중심은 1988년 3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지식인들이 구성된 “카라바흐 위원회”(Karabakh Committee)였다.¹³⁾ 당시 소련정부는 NKAO문제에 관한 분명히 반아르메니아 입장에서 있었다. 예컨대 아르메니아 일부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소련정부는 아제르바이잔 지역에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990년에는 아제르바이잔군과 함께 소련군은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만행과 학살에 동조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소련이 아제르바이잔과 협력한 이유는 아제르바이잔은 당시 소련의 지도력에 대해 동조하고 현상유지(status-quo)를 지지하는 국가였다면 그루지야와 함께 아르메니아는 소련으로부터의 독립과 변화를 지지하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8월 소련의 쿠데타 이후가 되어서야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지만 아르메니아는 페트로산(Ter-Petrosian)이 1990년 8월에 이미 새로운 민주정부를 구성하고 1990년 말에 아르메니아 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이미 1991년 1월 바쿠에서의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인종청소는 3년 전 숨가이트에서의 사건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는 NKAO의 변화에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1년 9월 2일 NKAO의 지도부는 종전의 자치주에서 독립된 공화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RNK: Republic of Nagorno-Karabakh)으로 선포하였다. 이로써 종전의 아르메니아와의 통합보다는 독립공화국 설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¹⁴⁾

III. 유라시아 시대 “아르메니아 문제”의 전개

유라시아 시대란 21세기에 러시아의 약화로 미국, 터키, 유럽, 중국 등의 강대국들이 유라시아 지역에서 경쟁하게 됨을 의미한다. 소련붕괴 이후 유라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독점적 지배가 무너지고 주변의 이란, 터키, 유럽, 미국, 중국 등

13) Armand Sarian, “Economic Challenges Faced by the New Armenian State,” *Demokratizatsiya*, Vol. 14, No. 2, (2000) pp. 193-221.

14) http://nkrusa.org/nk_conflict/facts_evidence.shtml (검색일 2009년 1월 5일).

이 정치/경제 군사/안보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동안 소련이념의 억압아래 잠재해있던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은 제국의 붕괴와 강대국 힘의 균형의 균열을 배경으로 다시 한 번 일어났다. “아르메니아문제”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전쟁과 터키와의 관계 개선의 두 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터키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두고 역사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벌여 온 터에 1993년에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을 빌미로 아르메니아와의 국경을 봉쇄하였다. 터키와의 국경봉쇄는 아르메니아의 지역적 고립을 가져와 아르메니아 경제발전과 남코카서스 지역발전과 협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지역 주변국 외교 차원에서 지리적으로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란, 그루지야와 같은 주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아르메니아는 주변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대외 경제관계 등을 원활히 하는데 필수적이다. 아르메니아는 결과적으로 터키, 아제르바이잔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 그루지야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이후 아르메니아의 지역 주변국 외교의 가장 큰 과제는 터키,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 정상화였다고 말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독립직전 부터의 전쟁이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에 의해 국경을 봉쇄당한 아르메니아는 외부와의 유일한 무역 통로로 이란과 그루지야의 협조로 국가의 대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터키, 아제르바이잔과의 적대적 관계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분쟁은 유라시아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피해 규모가 큰 인종 영토 분쟁이다. 아르메니아는 현 상태의 아르메니아 영토로는 온전한 아르메니아 국가를 이룩했다고 볼 수 없으며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의 영토와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본다. 수백 년의 터키제국아래에서 지배를 받다가 20세기 초에 독립한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원래의 영토의 10분의 9가 현 터키의 영토안에 편입되어 있으며, 20세기초 아르메니아의 영토회복과 독립운동 당시 터키 당국에 의해 학살된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사죄를 터키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18-19세기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간의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를 둘러싼 분쟁은 소련시대에 잠재된 상태로 존재하다가 소련의 붕괴와 동시에 다시 불거져 양국간에 1991-1994년 동안 전쟁을 가져왔으며, 1994년 정전협정 이후 현재까지도 양국이 전쟁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A.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관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는 1990년대 초 현재 약 4388 평방km의 소규모의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약 15만 명의 아르메니아인과 약 4만 명의 아제르바이잔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카라바흐 분쟁의 핵심은 영토 보전을 주장하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독립과 자치를 주장하는 카라바흐 거주 아르메니아인들간에 일어난 인종 영토 갈등이다. 1987년에 최초로 민중봉기의 형태로 일어난 사태가 1991년에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카라바흐 거주 아르메니아인들을 도우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전쟁은 초기 단계부터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측의 일방적인 우세로 기울었다. 1992년 4월 카라바흐 근처의 호잘리(Khojaly)라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의 함락은 이후 전세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호잘리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아제르바이잔은 매우 큰 타격을 받았으며 많은 아제르바이잔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호잘리 학살 이후 슈샤(Shusha), 라친(Lachin), 켈바자(Kelbajar) 같은 나고르노-카라바흐 근처의 또 다른 중요한 거점들이 모두 아르메니아 측에 함락되었다.¹⁵⁾

전쟁은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승리로 끝났다. 1994년 5월 정전이 되었을 때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뿐 아니라 근처의 7개 지역을 포함해서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약 20%에 해당하는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는 양측에 모두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양측의 희생자는 약 2만 명에 달하며 약 45만 명의 아르메니아 난민과 80만 명의 아제르바이

15) Svante E. Cornell,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Uppsala University, 1999, p. 33; 장병욱,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과 국제관계," 『중동연구』 제25권 제1호 (2006), pp. 39-64.

잔 난민을 발생시켰다. 전쟁으로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양국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아르메니아의 경제적 피해는 더욱 더 큰데 그 이유는 아제르바이잔과 터키가 아르메니아와의 국경을 봉쇄해 버림으로써 외국과의 무역과 해외로 부터의 투자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2년 다국적 기업 베네통은 예레반에 두 개의 의류공장을 설립하였으나 국경 봉쇄로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장을 폐쇄하고 아르메니아로부터 곧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¹⁶⁾ 아르메니아는 에너지의 약 95%를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이 에너지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국경봉쇄는 오늘날도 계속되어 아르메니아의 대외교역은 이란과 그루지야의 국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¹⁷⁾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발발이후 국제사회는 전쟁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설치한 소위 “OSCE 민스크 그룹”(OSCE Minsk Group)이다. 민스크 그룹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공동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해 협상을 중재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OSCE 다국적군을 파견하는 임무를 맡았다. 흔히 리스본 프로세스로 알려진 1994-1996년 기간의 민스크 그룹의 중재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1997년 첫 주요 평화협상안이 제시되었다. 협상에 있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로서 아제르바이잔측은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군이 점령하고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와 주변 7개 지역으로 부터의 아르메니아군의 우선 철수와 점령지역에서 살던 아제르바이잔 난민의 복귀를 꼽고 있는 반면 아르메니아측은 아르메니아군 철수 이전에 사실상(de facto)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된 나고르노-카라바흐의 국제적 지위를 법적으로(de jure)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주요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 Ibid., p. 52.

17) Ibid.

-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안전보장 및 다국적군의 투입

정전이후에도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국적군을 투입 해서 군사활동을 정지하고 UN, OSCE, 혹은 CIS군이 정찰활동을 하도록 하는 안전보장 조치등이 뒤따라야한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측 모두 이러한 안전보장과 다국적군의 투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 라친(Lachin)과 슈샤(Shusha) 문제

아제르바이잔이 카라바흐의 지위를 논하기 전에 선결조건으로 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두 군데의 전략적 요충지가 있는데 아르메니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카라바흐지역과 아르메니아 본토를 연결하는 좁은 회랑인 라친(Lachin Corridor)과 카라바흐의 언덕지역인 슈샤라고하는 지역으로 전쟁전에는 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다.

-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지위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영토적 지위는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다. 카라바흐 거주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에 종속되는 어떤 지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제르바이잔측은 “최고 수준의 자율성”(highest form of autonomy)만이 유일한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1997년 5-6월 동안의 첫 번째 중재안은 소위 패키지안(package proposal)으로 알려진 것으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삼자간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하는 안으로서 우선 점령군 철수, 다국적군의 투입, 난민의 복귀, 상호안보보장 등을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카라바흐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지위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보전을 인정하되 카라바흐에게 사실상의 국가주권에 해당하는 모든 특권을 누리도록 하는 안이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패키지안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으나 카라바흐측이 마지막 단계에서

거절함으로써 협상안은 부결되었다.¹⁸⁾

1998년 11월 2차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 중재안에 따르면 카라바흐 공화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아르메니아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아르메니아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였으나 아제르바이잔이 거부함으로써 협상은 다시 결렬되었다. 아르메니아의 코차리안 대통령과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에프 대통령은 1999년에도 수차례 만나 카라바흐 문제 해결을 논의하였으나 모두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났으며 2001년 4월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양국 정상은 다시 만났으나 결렬되고 회담은 무기한 연기되었다.¹⁹⁾

B. 아르메니아-터키 관계

아르메니아와 터키 관계는 남코카서스의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아직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 아르메니아-터키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915년의 아르메니아학살에 대한 인정과 보상 그리고 궁극적인 과거 서아르메니아 영토 요구
- 아르메니아의 카라바흐 점령과 이에 따른 터키의 아르메니아 국경봉쇄
- 터키의 코카서스에서의 “범터키 정책”에 대한 아르메니아의 경계와 러시아-이란-아르메니아 삼각축 구축

1990년대 초 아르메니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르메니아-터키관계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터키는 아르메니아

18) International Crisis Group, “Nagorno-Karabakh: Risking War,” November 14, 2007, p. 6; 장병욱, “나-카분쟁과 아제르-아르메니아 평화과정,” 『중동연구』 제26권 제2호(2007), pp. 277-298.

19) Petros, op. cit., p. 11; Elkhan Mehtiyev, “Armenia-Azerbaijan Prague Process: Roadmap to Peace or Stalemate for Uncertainty?” Conflict Studies Research Center (2005).

를 터키가 주도하는 흑해경제협력기구에 공식적으로 초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 영토분쟁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아르메니아-터키 관계도 곧 “아르메니아문제”에 부딪혀 악화되게 되었다. 아르메니아는 1870년대부터 1915년까지의 터키인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약 150만 명 학살 사실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정과 지지를 받기 위한 많은 외교활동과 로비를 벌였다. 터키정부가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 아르메니아인 학살이 역사적 사실로 기정사실화되면 단순히 학살로 그치지 않고 학살이라는 사실이 가져올 영토변경 가능성 때문이다. 아르메니아는 그 동안 현 아르메니아와 터키의 국경을 확정된 1921년의 소련과 터키간의 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터키의 북동부 지역과 카스지역(Kars Region)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학살 사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 아르메니아의 이러한 영토요구에 대한 정당화를 줄 가능성을 터키는 염려하는 것이다.²⁰⁾

터키도 다양한 외교활동과 로비를 통해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의 학살 주장을 반박해왔으며 2005년에는 아르메니아측에 아르메니아와 터키 양측이 학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뉴욕소재 이행기 사회의 정의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는 2003년의 보고서에서 1915년의 사건을 1948년의 유엔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학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아르메니아가 영토적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²¹⁾ 국제사회도 아르메니아-터키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해왔다. 2007년 1월 터키의 언론인이 아르메니아인에 의해 피살되면서 양국 간의 관계정상화가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2007년 4월 5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아르메니아-터키간의 관계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터키가 아르메니아의 카라바흐 점령에 대한 대응으로 아르메니아에 대한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이유는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아르메니아에게 압박을 가해 카라바흐로부터 철수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었다. 그러

20) Cornell, 1999. 앞의 글, p. 77.

21) Emil Danielyan, “Nobel Laureates Call for Armenia-Turkish Reconciliation,” Radio Free Europe, April 1, 2007.

나 실제로 국경봉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행되어 아르메니아 경제는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기계, 건축자재 등 터키 물건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많은 터키의 기업들은 터키와 아르메니아간의 국경이 닫혀있어 그루지야를 통해 우회 무역을 하고 있는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고 아르메니아 뿐 아니라 터키동부지역도 국경봉쇄의 피해를 받고 있음을 지적한다.²²⁾

아르메니아는 터키가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에 “범터키 연대”를 내세워 코카서스와 그 주변지역에서 세력확장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다. 코카서스에서 이러한 범터키 세력확장 정책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형태를 갖게되며 범터키 세력확장이 코카서스에서 중앙아시아, 중동으로 확산되는 중간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에 대한 말살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1917년 소련의 등장과 1923년 터키공화국(Turkish Republic) 출범 이후 터키는 의도적으로 과거에 문화, 정치적으로 터키의 지배아래 있던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그리고 터키영토 밖의 “터키권”(Turkic World)과 회교도 세력들과의 교류를 회피해 왔다.²³⁾ 소련붕괴는 20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이와 같은 터키의 외교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동안 터키로부터 떨어져 있던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일부 남동부유럽, 중동의 국가들이 터키와의 교류를 다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오잘(Turgut Özal-1989-1993)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 진출을 도모함으로써 이 지역의 터키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비공식적” 지도자가 되려고 시도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문화원을 개설하고 터키해외방송을 지원하였으며 중앙아시아의 학생들을 터키에서 공부하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터키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초기의 낙관적인 계획에 비해 제한적인 성공만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²⁴⁾ 우선 터키가 중앙아시아에서 지도력을 발휘할만한 역할을 할 재정적인 능력을

22) Cornell, 1999, 앞의 글, p. 78.

23) F. Stephen Larrabee and Ian O. Lesser, *Turkish Foreign Policy in an Age of Uncertainty*(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3), p. 99; 김연규·엄구호, “카스 회해 에너지의 지정학: BTC 송유관개통의 지정학적 의미,” 『국제지역연구』 2006 여름호.

24) Larrabee and Lesser, op. cit., p. 101.

터키가 가지고 있지 못했고 중앙아시아와 터키의 경제력의 차이가 중앙아시아와의 교류가 터키에게 별다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터키로부터 더 많은 경제지원만을 요구했다. 또한 소위 “터키모델”(Turkish Model)로 알려진 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본적이고 전통적인 것 보다는 세속적이고 근대적인 형태의 이슬람을 강조하는 터키의 이념이 아직은 구소련의 독재자가 지배하고 과격화 하는 이슬람이 존재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국가개발 이념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²⁵⁾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지속적인 영향력이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여러 측면에서 터키보다는 유리한 입장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련경제의 네트워크 영향력이 아직도 강해 러시아의 경제적 압력에 아직 취약하다. 인종적으로도 카자흐스탄과 같이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국가가 있어 러시아가 개입할 명분이 강하다. 국가들 간의 인종, 영토 분쟁이 빈번해 러시아 개입을 필요로 한다. 또한 중앙아시아 경제의 생명줄인 에너지 개발과 운송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막강하다.²⁶⁾

중앙아시아에서와는 달리 터키의 코카서스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터키의 코카서스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아제르바이잔이다. 터키-아제르바이잔 관계는 역사, 인종, 문화, 언어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 민족주의의 발생지의 한 군데이고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터키에서 사용되는 터키어와 언어적으로 가장 가깝다. 소련이 아제르바이잔을 병합하자 아제르바이잔의 많은 지식인들은 터키로 망명하기도 했으며 2차 대전 이후에도 많은 아제르바이잔인들이 터키로 이주하였다.²⁷⁾ 소련 붕괴 후 아제르바이잔이 독립국가로 등장하자 터키는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아제르바이잔에서 1992년 6월 엘치베이(Ebulfez Elchibey)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밀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엘치베이는 “터키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을 근거지로 다른 (남)코카서스 국가들로까지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하였으

25) Ibid., p. 101.

26) Ibid., p. 102.

27) Ibid., p. 104.

나 러시아가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1993년 6월 쿠데타로 엘치베이가 실각하면서 터키의 전략에는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으로 새롭게 대통령으로 선출된 구소련 브레즈네프 시대 정치국회원이었던 알리에프(Heydar Aliev)는 예상과 달리 엘치베이의 친터키 노선을 계승하였다. 알리에프 시대는 터키-아제르바이잔 관계는 군사 분야까지 확대되어 1996년에는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장교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의 NATO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도왔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경제분야의 협력으로 2001년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협정과 아제르바이잔의 석유를 그루지야를 통과해 터키의 흑해 항구를 통해 서유럽에 공급하기로 한 에너지 협력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²⁸⁾ 터키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직접투자액(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은 87억달러(\$8.7 billion)에 달하며 터키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아제르바이잔의 3대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과 영국이 주로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약 1,267개의 터키 회사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²⁹⁾

터키는 그루지야와도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터키-그루지야 관계는 1997년 3월에 맺어진 군사원조와 협력에 관한 협정에 기반하고 있다. 이 협정은 그루지야에 터키가 장교들을 위한 군사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며 터키 군사아카데미의 유학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있다. 2000년 1월 양국은 “남코카서스 안정화조약”(South Caucasus Stability Pact)을 맺었는데 이는 남코카서스의 평화를 위하여 남코카서스 분쟁 해결에 러시아 뿐 아니라 서구 국가들을 참여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데 터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³⁰⁾ 터키는 그루지야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그루지야의 총수입의 27%를 차지하는 터키의 그루지야로의 수출은 1995년의 6800만 달러(\$68million) 2000년에는 1억3천만

28) Ibid., p. 105; 김연규·엄구호, 앞의 글, 2006.

29) Serkan Yalcin, “Turkish Investments in Georgia and Azerbaijan: Rec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March 9, 2006. http://www.caucaz.com/home_eng/breve_contenu.php?id=259 (인터넷 검색일 2007년 2월 20일).

30) Larrabee & Lesser, op. cit., p. 106.

달러(\$131million)로 늘었다.³¹⁾ 2004년 터키의 그루지야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3천만 달러(\$30million)로 그루지야의 총FDI의 23%로 미국과 영국의 FDI에는 크게 못 미치고 대부분은 건설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IV. 러시아, 미국, 이란의 “아르메니아문제” 개입

아르메니아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은 러시아, 미국, 이란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르메니아문제”는 결국 코카서스와 그 주변지역에서 “범터키 연대”의 세력확장에 대한 염려이며 코카서스에서 이러한 범터키 세력확장 정책은 우선적으로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연대의 형태를 갖게 되며 범터키 세력확장이 코카서스에서 중앙아시아, 중동으로 확산되는 중간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에 대한 말살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르메니아는 유라시아 시대에 다시 부상하는 터키를 견제하기 위하여 러시아, 미국, 이란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러시아는 소련제국의 종주국으로서 제국은 이미 사라졌지만 새로운 틀 안에서 옛 제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되살리려하고 있다. 미국은 “지정학적 다원주의화”(geopolitical pluralism)를 기치로 내걸고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이 지역을 둘러싼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인 카스피해 자원개발을 미국과 EU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고자한다. 이란은 미국과 터키가 지역국가들과 협력하여 이란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개발 운송하는 것을 염려하며 지역갈등이 이란내부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아르메니아 대외정책의 시각에서 보면 아르메니아는 터키,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위협을 견제하기위해 주로 러시아, 부분적으로 이란과 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제르바이잔이 주로 이란, 아르메니아, 부분적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터키와 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는 그루지야는 미국의 보호를 추구한다. 아르메니아는 따라서 미국과 EU 친화

31) Serkan Yalcin, “Turkish Investments in Georgia and Azerbaijan: Rec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March 9, 2006. http://www.caucaz.com/home_eng/breve_contenu.php?id=259 (인터넷 검색일 2007년 2월 20일).

적이고 터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제르바이잔, 터키, 그루지야가 주축이 되는 남코카서스 지역협력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미국과 EU 친화적인 남코카서스 지역협력에서 배제됨으로써 카스피해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카스피해 에너지로 인한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어 있고, 기본적인 무역과 대외경제 활동이 제약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07년 11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아르메니아의 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아르메니아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르메니아와 러시아와의 관계는 조사대상자의 94%가 좋다고 말함으로써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의 가장 믿을만한 외교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 터키나 아제르바이잔은 90% 이상이 관계가 나쁘며 아르메니아의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 지역국가인 터키 아제르바이잔과의 오래된 역사적인 인종 영토분쟁에 있어 아르메니아는 전통적으로 강대국 러시아에 의지해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로서 생존하려고 하는 경향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소련 붕괴이후의 유라시아 시대에도 러시아만이 아르메니아의 영토회복과 온전한 국가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는 역사적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아르메니아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문

질문: 다음 각각의 국가들과 아르메니아와의 관계를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관계로 표현한다면? (단위: %)

	좋음	나쁨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
러시아	94	3	3
이란	87	6	7
EU	83	5	12
미국	68	10	22
그루지야	56	24	20
터키	5	90	5
아제르바이잔	2	94	4

출처: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Armenia), Armenian National Study (December 1-9, 2007).

질문: 미래에 아르메니아는 다음의 지역기구에 가입하여야하는가? (단위 %)

	당연히그렇다	아마 그렇다	아마 아니다	당연히 아니다	모른다
나토가입	13	35	23	16	13
EU가입	34	49	6	4	8
CIS 회원유지	43	39	6	3	9

출처: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Armenia), Armenian National Study (December 1-9, 2007).

이런 상황에서 아르메니아는 범아르메니아 국가건설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어 지역협력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아래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서구,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해 소위 흔히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쓰는 말로는 “보완적”(complementary)인 외교를 펼치려는 시도를 하였다.³²⁾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의 안보적 우려를 이해한다”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나토확대를 아르메니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1997년 나토의 “평화동반관계”(Partnership for Peace)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에게 안보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아르메니아는 나토의 남코카서스 개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나토의 개입이 CIS 집단안전보장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반대한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CIS 관세동맹이나 러시아-벨라루스연합 등의 참여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나 러시아 중심의 군사협력에는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아르메니아는 터키-아르메니아 국경,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국경 수비는 아직도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실제 아르메니아는 군사적인 것 이외의 측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려 노력하였다. 오늘날 아르메니아는 경제적인 면에

32) “U.S. - Armenian Relations: Current Realities and Vision for Future,” Address by Armenian Ambassador to the US Arman Kirakossian at the Virginia State University,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rrorism and Threat Assessmen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Partnership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Democracy-Building and Market Reforms, November 12, 2004.

서 러시아보다는 서구의 자본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원조를 두 번째로 많이 받는 국가이다.

실제 아르메니아가 “친러” “친미” 또는 “균형” 외교 가운데 어떤 외교노선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국내의 다양한 세력들의 위의 대안적 외교노선을 둘러싼 경쟁의 결과였다. 많은 소규모의 야당과 친러시아 지식인, 해외교포 등은 “친러” 노선을 형성하며 이 노선의 핵심에는 “1915년 학살”(1915 genocide)과 터키에 잃어버린 아르메니아의 옛 영토 회복이라는 구호가 자리하고 있다. 카라바흐 분쟁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본다. 이들은 러시아만이 아르메니아의 이러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또한 서구와 미국을 터키를 지지한다고 비난하며 포괄적으로는 그리스, 이란, 시리아 등 터키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아르메니아의 독립이후 첫 대통령인 페트로산(Levon Ter-Petrosyan)은 1991년 10월 16일 아르메니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에는 카라바흐의 독립을 주장했던 카라바흐 위원회의 의장을 지냈다. 터키와의 관계개선과 카라바흐 분쟁 해결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페트로산 대통령과 그의 정당 ANM은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적 온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Armenian Revolutionary Party(ARF), Armenian Democratic Liberal Party(ADP) 그리고 그 밖에 해외 교포 정당등에 의해 끊임없이 비난을 받았다. 1996년 9월 페트로산이 재선에 성공하자 야당과 특히 아르메니아 교포 그룹들은 부정선거에 의해 페트로산이 재집권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민스크그룹의 평화중재안을 수용하려던 움직임을 보이던 때였다. 마침내 1998년 4월 코차리안(Robert Kocharyan)이 아르메니아의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코차리안은 카라바흐 공화국의 수상이었고 강한 아르메니아를 주장하는 야당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균형적인 외교를 주장하는 APM 과 같은 정당은 “대아르메니아” 건설과 같은 비현실적인 외교목표를 지향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영토내에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카스피해 에너지와 같은 요인 때문에 언제든지 아르메니아를 희생시킬 수 있는 국가로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아르메니아의 국익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본다.

아직은 소수에 그친 의견이긴 하지만 친미노선의 견해에 따르면 남코카서스 분쟁의 주요 원인은 러시아라고 보는 것이다. 러시아는 남코카서스의 세 국가를 모두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종속시키도록 만들고 이를 위하여 각각의 국가에서 인종분쟁을 교묘히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구로 하여금 이러한 목표를 이룰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영토적 계획을 포기하고 아제르바이잔의 주권을 존중하기로 결정하면 아르메니아는 카스피해의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며 러시아군은 아르메니아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A. 러시아

1)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의존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관계는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연대에 기초해 있다.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는 남코카서스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의 붕괴라는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다. 남코카서스 지역은 러시아 국익에 여전히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미국, 이란, 터키의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러시아 시각에서 남코카서스 지역의 안정은 러시아 영토내의 북코카서스 안정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³³⁾ 터키의 중앙아시아와 남코카서스에서의 확장정책은 러시아의 국익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터키는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과 아제르바이잔에 터키 이슬람 민족주의를 고양함으로써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나토의 회원국인 터키는 서방과 공동으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고 본다.

1988년에서 1991년의 소련 붕괴 단계에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다시 일어났을 때 소련 정부가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해 아르메니아와 카라바흐의 붕기를 탄압하려 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소련정부가 나고르노-카라

33) Ibid., p. 7.

바흐 지역과 슴가이트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인종청소가 자행될 때 불개입 정책으로 나오자 아르메니아인들의 러시아인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었다. 소련군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몇몇 아르메니아인 마을에서 아제르바이잔군과 함께 아르메니아인 소탕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³⁴⁾

1992년 이후의 상황은 러시아로 하여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소련말기에는 아르메니아가 현상유지에 도전하는 민주화 세력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가 추구하는 세력 구축에 반대하는 국가가 되었다. 즉, 아제르바이잔이 친서방 국가가 되었고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그루지야가 가세를 하게 된 것이다.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은 1992-1993년 동안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하길 거부하고 러시아 세력권에서 빠져나와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1992년 5월 일찍이 CIS에 가입하였으며 특히 CIS의 상호군사조약(Mutual Security Pact)에 가입하였다. 아르메니아와 러시아의 관계강화는 당시 막 시작된 카라바흐전쟁의 항배와 밀접히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메니아가 CIS에 가입한 시점이 정확히 1992년 5월 16일이고 공교롭게도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에 대공습을 가한 날짜가 5월 17일이었으며 4일 뒤에 소련 시대부터 존재하던 아르메니아의 러시아 군사기지 유지를 위한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양 국가 간 협약이 있었다.³⁵⁾

전쟁 초반 러시아-아르메니아간의 관계강화와 전쟁에서의 초반 패배는 1992년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친 러시아 정권의 몰락과 친터키 정권 수립을 가져왔다. 1992년 2월 친러시아 인사인 무탈리보프(Mutalibov)가 카라바흐 전쟁에서의 호잘리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1992년 6월까지 권력공백을 거쳐 6월이 되어서야 친터키 인사인 엘치베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아제르바이잔 정권이 터키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동안 러시아-아르메니아 관계는 가

34) Taline Papazian, "From Ter-Petrosian to Kocharian: Explaining Continuity in Armenian Foreign Policy, 1991-2003," *Demokratizatsiya*, Vol. 14, No. 2 (Spring 2006), p. 235-251.

35) Cornell, 앞의 글, 1999, p. 54.

까워졌다. 한편 카라바흐 전쟁도 아르메니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전쟁이 불리하게 전개되는 한편 아제르바이잔 국내정치도 안정이 되지 못하고 1993년 6월 엘치베이가 쿠데타로 실각하고 친러시아 인사로 알려진 알리에프(Heydar Aliiev)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알리에프의 등장의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고 알려져있다. 알리에프가 권력을 잡자 아제르바이잔은 1993년 9월 CIS 가입을 서둘러하고 카라바흐 전쟁에서 아르메니아 측에 대한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알리에프 정권은 초기에 CIS 가입을 함으로써 러시아의 보호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러시아 군사주둔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1994년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러시아 석유회사가 아닌 서구의 석유회사들과 석유개발을 하기로 함으로써 반러시아적인 입장을 취하였다.³⁶⁾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직접개입해서 아르메니아의 잠정적 승리를 가져왔다고 보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카라바흐 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뚜렷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게 무기를 지원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아제르바이잔측에도 러시아는 지원을 하였다.³⁷⁾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러시아-아제르바이잔, 러시아-그루지야와의 관계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을 금방 알 수 있다. 1997년 8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는 “우호협력조약”(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Support)을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은 양국이 제3국가에 의해 공격당하면 자동개입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간의 비슷한 조약에는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러시아-그루지야 간의 협력 조약은 심지어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였다.³⁸⁾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에 예레반과 굄리(Giumri)에 각각 3000명과 5000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러시아군은 1992년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러시아군이 남기고 간 무기와 주요시설로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상당부분 치를 수 있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1995년 3월 16일 러시아와 예레반 근처에 러시아 군사기

36) Ibid., p. 56.

37) Revaz Gachechiladze, “Geopolitics in the South Caucasus: Local and External Players,” *Geopolitics*, Vol. 7, No. 1 (2002), p. 132.

38) Ibid., p. 134.

지를 25년 동안 주둔시킨다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루지야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복잡한데 1994년 그루지야 정부도 러시아와 4개의 러시아군사기지를 향후 25년 동안 유지한다는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지금은 상당수의 러시아군이 이미 철수한 상태이다.³⁹⁾

2) 러시아에 대한 사회적 의존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와의 관계는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연대에 기초해 있다. 아르메니아는 남코카서스에서의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아르메니아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를 주변의 아제르바이잔, 터키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세력으로 본다.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와의 전략적 관계는 역사적으로 약 200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르메니아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의지는 심리적이고 역사적인 것이어서 아직도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 텔레비전을 보며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길 원한다.⁴⁰⁾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와의 관계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아르메니아는 2000년대 현재 아르메니아인이 아르메니아 전체인구의 98퍼센트에 달하는 남코카서스 3국 가운데 유일한 단일민족 국가이고 따라서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와는 달리 국내에서의 다른 민족들 사이의 인종분규나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다.⁴¹⁾ 아르메니아인의 인구비중은 소련시대에는 93퍼센트까지 내려갔으나 독립이후 아제르바이잔과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아르메니아로부터 추방되고 경제난으로 러시아인들이 아르메니아를 떠나면서 98퍼센트까지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영토안의 아르메니아 총인구는 약 3백만 명에 불과한데 반해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diaspora)는 8백만 명에 달한다. 대부분의 해외거주 아르메니아인은 러시아(2백만), 미국(80만), 그루지야(40만), 프랑스(25만), 우크라이나(15만), 이란(10만), 시리아(7만), 아르

39) Ibid.

40) International Crisis Group, "Armenia: Internal Instability Ahead," October 18, 2004, p. 21.

41) 아르메니아의 전반적 인구통계 및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http://www.armstat.am/Publications/2006/PV_04/PV_04_2.pdf (검색일: 2007년 2월 10일) 아르메니아 인구통계조사(National Population Census of Armenia) 를 참조하라.

헨티나(6만), 터키(6만), 캐나다(4만), 호주(3만) 등에 분포해있다.⁴²⁾ 러시아는 또한 대부분의 남코카서스 국가들의 노동자들에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러시아에는 현재 약 3백만 명의 남코카서스로부터의 이주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약 2백만 명이 아제르바이잔 나머지는 아르메니아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러시아 정부의 그루지야에 대한 적대 정책은 2000년 12월 5일 그 동안 모든 CIS 국가에게 적용되던 여행객과 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러시아로의 입국을 보장하는 소위 “비쉬켈 조약(Treaty of Bishkek)”을 그루지야 시민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비자 규정의 발효에서 입증되었다. 러시아가 그루지야에게만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그루지야의 친서방 정책에 대한 징벌의 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⁴³⁾

3)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

러시아에 대한 아르메니아 경제의 의존성은 소련경제체제 내에서도 매우 컸다. 소련시대에 아르메니아 경제는 화학, 전자, 기계, 식품가공, 합성고무, 섬유 등 전체경제의 20퍼센트에 불과한 농업보다는 주로 공업에 의존해 다른 공화국들에게 공산품을 제공하고 대신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수입하였다.⁴⁴⁾ 아르메니아의 공업발전은 19세기 후반의 남코카서스 철도(Transcaucasus Railways) 건설과 함께 시작되었다. 러시아 제국은 Baku-Tbilisi 라인을 1883년에, Tbilisi-Gyumri 라인과 Gyumri-Yerevan 라인을 1902년에 완성하여 바쿠의 석유, 그루지야의 망간, 아르메니아의 구리 개발에 당시 몰려들던 외국인 투자를 이용해 남코카서스 지역의 자원개발 운송을 위하여 활용하였다.⁴⁵⁾ 당시 아르메니아의 구리개발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행사했던 국가는 프랑스였으며 그루지야의 와인과 코냑생산도 프랑스의 자본이 지배하였다. 그 후 아르메니아 경제는 소련 지배 이후에는 1920-1940년대에는 주요회사와 자원의 국유화 작업이 진행

42) Ibid.

43) Ibid., p. 135.

44) Armand Sarian, “Economic Challenges Faced by the New Armenian State,” *Demokratizatsiya*, Vol. 14, No. 2 (Summer 2006), pp. 193-221.

45) Ibid., p. 194.

되었고, 2차 대전 이후 1946-1960년대에는 공작기계산업(machine-tool industry)이 도입되었다.⁴⁶⁾ 그 후에도 산업다각화가 진행되어 화학, 기계, 전자와 경공업(섬유와 신발)등이 발전되었다. 1960-1980년 사이에 산업 비중은 66.9%에서 71.6%로 높아졌고 소련정부에 대한 산업생산의존율이 50.8%, 기업 대출의존율은 71.9%로 다른 어느 공화국보다 소련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았다. 예컨대, 에스토니아는 각각 28%, 59%, 타지키스탄은 28.9%, 72.4%, 몰도바는 28.4%, 48.2%, 그루지야는 31.4%, 66.9% 였다.⁴⁷⁾ 이러한 수치들은 나중에 다른 공화국들과 비교한 소련 붕괴의 아르메니아 경제에 대한 여파를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 경제도 소련붕괴의 큰 충격을 받았다. 아르메니아 공업을 유지하던 소련의 투자가 철수하자 아르메니아 산업은 무너졌다. 1989년-1993년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60퍼센트나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의 아르메니아 경제 붕괴를 심화시킨 것은 1988년에 있었던 25,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의 지진(Spitak Earthquake)과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개시였다.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으로 아제르바이잔과 터키가 아르메니아와의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외부 국가들에 에너지와 자원을 의존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경제는 육로교역 루트(land trade routes)를 상실한 채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⁴⁸⁾ 이란과 그루지야를 통과하는 육로 교역 루트는 아르메니아 경제를 회복시킬 만큼 충분한 교역량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1991-1994년의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경제정책은 카라바흐 지역에서의 원칙고수, 생필품의 국가배급을 유지하면서 토지사유화로 농업분야의 사유화가 진행되어 시장경제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었다.⁴⁹⁾ 이 기간 동안 공업국 아르메니아는 공업기반이 무너진 채 농업에 의존하는 국가가 되어있었다.

아르메니아 경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경제개혁협상을 시작한 1994년 부터였다. 첫 IMF 지원금이 제공된

46) Ibid.

47) Ibid., p. 195.

48) 아르메니아 인구통계 조사 Ibid.

49) Sarian, op. cit., p. 195.

것은 1994년 11월의 1700만 SDR이었다. 아르메니아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국내의 정치세력이 다양한 노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었다. 아르메니아 경제는 1994년부터 광범위한 경제개혁 작업에 착수하여 개혁의 효과가 1995년부터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안정된 경제성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3년의 인플레이션율이 11,000% 였던 것이 1994년 5.237%, 1997년에 14%로 줄었다.⁵⁰⁾ 이후 인플레이션은 한 자리 수였으며 경제성장율은 1995년 이후 꾸준히 1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였다. 특히 2001-2004년은 경제성장의 전성기였다.⁵¹⁾ 2001년에는 12.9%, 2002년에는 9.6%, 2003년에는 14%, 2004년에는 10.1%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했다.⁵²⁾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보석가공, IT 산업, 관광산업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아르메니아의 1인당 FDI는 1999-2004년 기간 동안 약 2배 정도 늘어났지만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뒤떨어지고 있다.

최근 아르메니아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 경제는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와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아직도 상당 부분의 경제가 해외 거주 교포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월 개인소득은 \$80 이하인 가난한 국가이다. 아르메니아 경제발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의 경제봉쇄 조치로 인한 남코카서스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가 된 것이다. 그 피해액은 총 국가생산의 10-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0) Ibid.

51) 아르메니아 인구통계, Ibid., p. 31.

52) http://www.armeniadiaspora.com/js_05/050525econ.html (검색일: 2007년 2월 17일).

<표 2> 2005년 아르메니아의 주요 교역국(%)

	무역	수출	수입
CIS Countries	25.1	22.0	18.6
EU Countries	34.9	33.6	46.7
Other Countries	40.0	44.3	34.7
Individual Countries			
Russia	12.9	13.1	12.4
Germany	10.8	8.0	15.7
Belgium	10.2	8.4	13.6
Israel	8.1	6.2	11.7
USA	6.5	6.4	6.7
Great Britain	0.4	0.6	0.0
Iran	4.0	4.7	2.7
Switzerland	3.1	2.8	3.8
Georgia	2.0	1.0	3.9
UAE	1.0	0.9	1.1
Turkey	2.3	3.4	0.2
Ukraine	5.1	7.1	1.4
Turkmenistan	4.1	6.3	0.1

출처: Central Eurasia Annual 2005 (CA & CC Press, Sweden 2006), p. 85.

<표 3> 아르메니아로의 외국인투자(1인당 FDI, \$US)

	1999	2004
아르메니아	37.7	64.7
아제르바이잔	104.0	284.0
체코	339.8	383.4
에스토니아	233.3	298.2
그루지아	17.8	110.9
카자흐스탄	53.3	229.6
키르기스스탄	13.9	23.8
리투아니아	108.1	148.6
슬로베니아	75.0	- 20.9
타지키스탄	4.9	40.6
투르크메니스탄	20.8	47.2
우즈베키스탄	9.4	7.2

출처: NCCA for Armenia

최근 러시아의 아르메니아에 대한 영향력은 군사적으로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아르메니아 정부는 푸틴정부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0년 현재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가장 큰 교역국이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수출의 15%를 차지하였으며 수입 비중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특히 아르메니아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지배적이다. 러시아가 남코카서스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는 에너지 공급과 연관되어져 왔다. 러시아 에너지는 그루지야와 아르메니아에게는 필수적이며 심지어 에너지가 풍부한 아제르바이잔도 천연가스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이란의 천연가스를 아르메니아를 거쳐 그루지야로 수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럽시장으로 향하는 계획을 이란과 추진해 왔었으나 러시아가 반대함으로써 전체 계획이 무산되기도 하였다.⁵³⁾ 러시아의 아르메니아 경제에 대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는 이란의 가스를 아르메니아로 운송하는 사업자인 아르로스가즈프롬(ArmRosGazprom)의 지배주주이다. 이 회사는 이란의 천연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해 이란에 공급한다.
- 가즈프롬의 자회사인 가즈프롬네프트(Gazpromneft)는 아르메니아 남부에 정유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주요 판매대상은 이란이다.
- 러시아의 원자력회사인 로스아톰(Rosatom)은 아르메니아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 러시아와 아르메니아는 우라늄 채취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 러시아의 국영철도회사(Russian Railways)는 아르메니아의 철도사업을 25년 동안 운영하는 합의를 하였다. 아르메니아의 철도체계는 이란까지 확대되어 연결되어 있다.
- 러시아의 휴대폰 사업자인 빔펠콤(Vimpelcom)은 아르메니아의 전체 이동통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 러시아의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루살(Rusal)은 아르메니아의 수

53) Ibid.

출의 40%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포일 공장의 지배주주이다.⁵⁴⁾

최근에는 러시아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아르메니아내에 반대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2002년 12월 4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러시아에게 지고 있는 약 9500만 달러(\$95 million)의 빚을 탕감하기 위하여 5개의 아르메니아 기업을 러시아정부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아르메니아의 야당과 아르메니아 사회 일반 여론이 러시아-아르메니아간의 이러한 합의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우선 아르메니아의 5개 기업은 아르메니아의 러시아에 대한 부채보다 훨씬 가치가 더 나간다는 것이었고 더구나 러시아가 인수하게 된 5개 기업은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그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일부는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를 더욱 더 돈독히 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최근의 아르메니아-러시아 사이의 일련의 사건은 이러한 아르메니아 내부의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란의 Kazvin에서 시작해서 아제르바이잔의 Astarar를 통과해 러시아까지 이르는 철도건설 사업을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이 철도사업은 아르메니아를 우회하여 아르메니아의 경제적 고립을 더욱 더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⁵⁵⁾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가 2005년 2월2일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는 해결되자 않은 외교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한 것이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⁵⁶⁾ 라브로프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199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충돌을 진압하기 위하여 러시아군이 150명이 사망한 기념비를 방문한 것도 아르메니아 국내언론은 민감하게 보도하였다. 아르메니아 정부가 2005년을 “러시아의 해”(Year of Russia)로 지정한데

54) Stratfor, February 19, 2008.

55) Samvel Martirosyan, “ARMENIAN-RUSSIAN RELATIONS FACE UNCERTAIN TIMES,” *Eurasia Insight*, February 25, 2005.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eav022405.shtml> (인터넷 검색 2007년 2월 17일).

56) Ibid.

비해 러시아 정부가 2005년을 “아제르바이잔의 해”(Year of Azerbaijan)로 지정한 것도 아르메니아-러시아 사이의 미묘한 외교 정책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⁵⁷⁾

아르메니아의 이러한 염려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의 베슬란 테러로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아래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야와의 국경마저도 봉쇄하였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그루지야와의 국경무역을 허용하도록 러시아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아르메니아가 미국을 돕기 위하여 이라크에 군사력을 파병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견해도 있었다.⁵⁸⁾ 이러한 조치는 그루지야의 압하즈 지역과 아르메니아를 연결하는 철도 연결을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써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무역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B. 미국

미국은 남코카서스에 있어서 역사적인 기억을 공유하지 않는 새로운 참여자이지만 남코카서스 3국의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이후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남코카서스 지역에서의 목표는 우선 무엇보다도 중동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카스피해 에너지 개발과 확보이다. 이러한 최우선의 목표를 위해 아르메니아에 관해 미국은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해결이며 둘째는 아르메니아-터키의 관계정상화이다.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미국이 아르메니아와 협력을 할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터키를 남코카서스 지역의 안전보장에 핵심적인 국가로 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터키 중심의 미국외교를 아르메니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미국이 남코카서스를 미국 국익에 중요한 지역으로

57) Ibid.

58) Arman Grigorian, “TROUBLE IN AN UNLIKELY PLACE: STRAINS IN THE RUSSIAN-ARMENIAN RELATIONSHIP,”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January 12, 2005. http://www.cacianalyst.org/view_article.php?articleid=2951 (인터넷 검색일 2007년 2월 17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도 미국의 주요관심 국가는 아르메니아가 아닌 아제르바이잔이었다.⁵⁹⁾ 미국이 아르메니아의 정치에 개입이 되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 내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 교포들 때문이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백만 명의 아르메니아 교포가 있으며 미국에만 약 150만 명이 거주한다. 이들은 미국 정치에 강력한 로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⁶⁰⁾ 아르메니아가 미국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은 9/11 사태이후이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미국에 미국 전투기의 아르메니아 영공 통과를 허용하였고 아르메니아는 이러한 협력을 계기로 아르메니아 외교노선의 균형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아르메니아 외교관계는 “아르메니아 학살”(Armenian Genocide)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 오토만제국주재 미국대사 헨리 모겐소(Henry Morgenthau), 그리고 오토만제국에서 활동 중이던 적십자를 포함한 난민구호 프로그램들은 오토만 터키의 아르메니아인을 상대로 한 만행을 규탄하였다.⁶¹⁾ 당시 미국의 구호 활동가들과 선교사들은 생존자들을 위해 고아원을 설립하고, 의료활동을 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임시 숙소를 건설해서 수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의 목숨을 구하였다.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미국은 국제구호에 적극 동참하였다. 미국은 1991년 12월 25일 아르메니아를 아제르바이잔(1992년 2월)보다 앞서 독립국가로 승인하였으며 1992년 1월 7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미국인들은 1991년 1992년의 상황에서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보다 더 민주주의 국가로서 진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아르메니아의 민주국가로서의 이미지는 미국 거주 아르메니아 교포들과 프랑스 거주 아르메니

59) Edmund Herzig, *The New Caucasus: Armenia, Azerbaijan, and Georgia*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9), p. 34.

60) Ibid., p 50.

61) Kenneth Hachikian, “The Armenian American Community and US Foreign Assistance Policy,” Testimony before the Hous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ril, 2003. http://ancsf.org/files/essaysanalysis/US_Foreign_Assistance_Policy.pdf (인터넷 검색일 2007년 2월 19일)

아 교포들의 효과적인 로비덕분 이기도 하다. 그들은 서구 국가들에게 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은 도발 국이며 아르메니아는 억압받는 국가라는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였다.⁶²⁾

1992년 중반 미국의 코카서스 정책을 규정하는 자유지원법(Freedom Support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이 법의 907조 a항(Section 907(a))은 아르메니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경제지원을 금지하고 있었다. 자유지원법 907조는 미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르메니아 교포들의 로비덕분 이었다. 이러한 자유지원법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실제 영향은 상당해서 아르메니아는 매년 수백만 불의 경제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카라바흐 전쟁의 결과 생긴 수만 명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은 아제르바이잔의 정부관리들을 학회에 초청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어서 오직 미국의 시민단체들만이 아제르바이잔과 접촉할 수 있었다.⁶³⁾

정치적 차원의 미국과 아제르바이잔 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국적 석유회사들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석유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이미 이에 앞서 1993년 4월 미국의 석유기업들은 카자흐스탄의 텡기즈 유전 개발에 주요 개발자로 참여하였다. 미국의 석유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 석유개발 계약에 40% 지분 참여자로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 1994년 9월이었다.⁶⁴⁾

1995-1996년 동안 미국의 석유회사들은 미국 외교에서 카스피해 에너지와 아제르바이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혀갔다. 미국의 석유회사들은 일종의 “아제르바이잔 로비”를 형성한 것처럼 보였다. 1997년에는 미국과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카라바흐 분쟁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유럽안보기구의 민스크 그룹에 러시아,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이것은 아제르바이잔의 요구에 의한 것

62) Cornell, 앞의 글, 1999, p. 98.

63) Ibid., p. 102.

64) Ibid., p. 106.

이었다. 마침내, 1997년 7월 알리에프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방문하게 되었다.

미국 석유회사들의 로비로 인한 미국-아제르바이잔의 관계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아르메니아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아르메니아는 CIS 국가 가운데 미국의 경제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50억 달러에 달했다.⁶⁵⁾

1990년대에 미국과 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가치와 이해를 위해 협력을 넓혀왔다. 2000년 1월에는 미국의 범정부적 차원에서 US-Armenia Economic Task Force가 만들어져 미국과 아르메니아 사이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국무성, 재무성, 국제개발국(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백안관 안보국의 관리들이 서로 협력하는 체제가 이루어졌다.⁶⁶⁾ 주정부 차원에서도 각각 2001년 8월과 2001년 12월에 버지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아르메니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Yerevan)에 교역사무소(California Trade Office)를 열었다.⁶⁷⁾ 2003년에 아르메니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도 미국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외에도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제반 조치가 뒤따름으로써 아르메니아의 미국과의 교역액은 2001년 이후 급증하였으며 양국 간 무역액의 상당 부분은 보석에 관련된 것들이다. 아르메니아 보석수출 상대의 60%는 미국이었다. 미국의 목표는 아르메니아의 경제발전과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돕고, 양국 간 교역액을 늘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아르메니아 경제에 대한 봉쇄로부터 아르메니아를 도와주는 것이다.⁶⁸⁾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의 국경봉쇄로 인한 아르메니아의 경제 피해는 총 GDP의 20-30%로 추산되는데 특히 유일한 육상 교역 통로인 그루지아를 통하다 보니까 운송비용이 훨씬 비싸게 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 현재 미국은 아르메니아의 3번째로

65) Agahsi Harutuynyan, *Neighborhood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Armenia* (Central European University, 2006), p. 15.

66) http://ancsf.org/files/essaysanalysis/US_Foreign_Assistance_Policy.pdf (인터넷 검색일 2007년 2월 19일) Ibid., p. 5.

67) Ibid.

68) Ibid.

큰 교역 상대국이었으며 2001년에는 양국 간 교역이 43%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2003년 경제자유화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아르메니아는 161개 국가 가운데 44위를 차지해 한국, 폴란드, 헝가리보다 더 자유로운 경제로 알려졌다.⁶⁹⁾ 미국 국무성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아르메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은 Proctor & Gamble, Xerox, M&M, Dell, IBM 등 약 70여개로 알려져 있다.

C. 이란

코카서스의 국제관계에서 아직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왜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르메니아와 이란은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현재에도 그러하다.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은 터키, 이란, 러시아 제국에 의해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은 터키의 지배아래 가장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역사적 집단기억이 아르메니아의 오늘날 터키와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터키인들에 의한 차별과 박해 때문에 아르메니아인들은 이란인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예컨대 1915년의 학살이후 많은 수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이란에 정착한 사실을 들 수 있다.⁷⁰⁾ 이란은 아르메니아 소수민족을 지배할 때도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공평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준 것으로 인정된다. 아르메니아인들도 역사적으로 이란인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아르메니아인은 이란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란은 종교적 인종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역설은 터키와 이란이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산을 두고 벌이는 경쟁의 관점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그 경쟁은 이 지역의

69) Ibid., p. 6. 재인용.

70) Julian Zarifian, “Christian Armenia, Islamic Iran: Two (No So) Strange Companions,” *Iran and the Caucasus* 12 (2008), p. 130.

새롭게 독립한 많은 이슬람국가들에게 터키식의 서구화된 발전모델을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반서구적인 근본이슬람에 기반한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아제르바이잔을 보는 이란과 터키의 시각은 이러한 틀 안에서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과 터키 양국 모두와 인종 종교적 유대를 가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형제국임을 서로 강조하고 아제르바이잔 언어는 터키어와 매우 가깝다. 이란과 아제르바이잔도 페르시아 제국에 같이 편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아르메니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아제르바이잔과는 긴장관계를 갖고 있으며,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란은 아제르바이잔이 이란에 거주하는 아제르인들을 아제르바이잔에 편입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해오고 있었다. 예컨대, 북부이란에는 1,700만 명의 아제르인 등이 살고 있는데 이는 아제르바이잔 인구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은 북부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의 병합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양국관계를 긴장상태로 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⁷¹⁾

아르메니아의 독립 직후 카라바흐 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란은 양국 사이에서 비교적 균형적 입장을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란이 아르메니아를 지지하기 시작한 시점은 아제르바이잔의 엘치베이 대통령이 이란에 적대적 정책을 취하면서 이란과의 국경문제를 거론하면서부터이다. 1994년 카라바흐 전쟁 중 아르메니아군이 이란의 군용 비행기를 실수로 격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양국간의 관계는 오히려 아르메니아의 사과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양국 정상간의 상호 방문 횟수와 기타 장관급 회담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아르메니아의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할 때는 이란의 지도자 호메이니의 무덤에 헌화하고 이란의 지도자가 아르메니아를 방문할 때는 관례적으로 1915년 학살 기념비를 먼저 방문함으로써 양국의 지도자들은 상호 역사적 전통을 존중해주는 예의를 보여준다.

아제르바이잔과 터키가 아르메니아에 국경봉쇄를 한 이후에는 이란은 아르메니아에게 중요한 무역 통로가 되고 있다.⁷²⁾ 2002년 현재 아르메니아와 이란의

71) Ibid., p. 135.

72) Ali Mohammadi, and Anoushiravan Ehteshami, *Iran and Eurasia*, (Reading, UK:

교역량은 연간 1억 달러에 달하고 아르메니아는 전체 전력수요의 10%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1억달러의 교역 가운데 아르메니아는 약 3천만 달러를 이란에 수출하고 7천만 달러를 수입한다. 아르메니아는 이란에게 이란의 상품과 자본을 위한 주요한 시장이다.⁷³⁾

이란은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육상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고 미국 유럽이 추진하는 동서 에너지 운송로로부터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를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독점적인 에너지 공급 때문에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아르메니아 외교의 가장 큰 과제였다. 2007년 3월 이란과 아르메니아 양국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와 이란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을 시작하는 개통식을 하였다. 이 계약은 전적으로 이란의 자본으로 20년 동안 이란의 가스를 140km의 가스관을 통하여 아르메니아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V. 결 론

남코카서스의 오늘날 국제관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터키, 이란, 러시아 제국에 의해 지배를 받았으며 민족과 국가건설의 경험 없이 소수민족으로 흩어져 살았다는 사실이다. 아르메니아의 정체성 회복과 국가건설은 역사적으로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이 변할 때마다 등장하였으며 소련 붕괴이후 다시 등장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터키의 지배 아래 가장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역사적 집단기억이 아르메니아의 오늘날 터키와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남코카서스의 지역환경에서 러시아, 터키, 이란,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르메니아문제”(아르메니아가 정체성과 민족국가 건설)가 아르메니아 외교정책 수립과 실행에 미친 영향과 강대국들이 “아르메니아문제”에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Garnet Publishing, 2000), p 35.

73) Ibid., p. 40.

19세기에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터키의 영향력 감소로 아르메니아의 민족주의와 국가건설 문제가 본격적으로 유럽의 국제문제화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범아르메니아” 건설에 대한 약속을 암시적으로 하면서 터키의 영향력감소를 위한 아르메니아인들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였다. 영국은 러시아의 터키점령이 러시아의 지나친 영향력확대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여 아르메니아의 국가건설을 결과적으로 반대하고 따라서 러시아는 터키로부터 철수하게 되었다.

21세기에는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와 터키의 영향력 확대로 아르메니아의 민족주의와 국가건설 문제가 다시 국제문제화되고 있다. 아르메니아 대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은 러시아, 미국, 이란이다. 당초 아르메니아에 호의적이었던 러시아, 미국은 아제르바이잔의 원유 개발 및 수송로 확보를 위한 지역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아르메니아측에 OSCE 해결 원칙을 수용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과 터키가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이란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개발 운송하는 것을 염려하며 지역갈등이 이란내부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르메니아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 관한 한 “균형”(complementarity)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아르메니아의 외교는 러시아에 경도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그 원인은 아르메니아의 국익 규정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아르메니아 대외정책의 요인 가운데 아르메니아의 국제경제관 보다는 아르메니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해 온 터키의 안보적 위협과 아르메니아의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이라는 아르메니아의 안보관이 더욱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는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변화를 시도하긴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에 러시아는 군사적인 분야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과거 페트로산 대통령 집권시에는 아제르바이잔 송유관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경우, 경제적, 안보적 이점을 고려하여 OSCE의 해결 원칙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코차리안 대통령 당선이후에는 민족주의적이고 러시아 의존적 강경 입장을 견지하였다.

[논문투고일: 2009. 01. 15]

[심사의뢰일: 2009. 01. 16]

[게재확정일: 2009. 02. 10]